

한국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174억원 투입

김희준 | 승인 2026.04.15 10:59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지은행 운영
자연재해 등 회생지원에 19억원
시세보다 저렴, 청년농 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농지은행 사업에 올해 17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174억원이 투입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김기진)가 농지 필요, 규모 확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등에게 맞춤형 농지를 지원,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농지은행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부채나 자연재해로 경영 위기가 도래한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올해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까지 6억원이 지원됐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 대위변제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돕고 해당 농업인에게 매입 필지를 최장 10년 동안 임대하는 것이다. 임차기간 동안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 필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 순천광양여수지사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112억원 △농지 및 과원 규모화 사업 12억원 △선임대후매도사업 4억원 △경영회생사업 19억원 △농지연금사업 25억우너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억7000만원, 모두 174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어촌공사는 은퇴 고령 농업인의 매도 농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귀농·귀촌 도시인이나 청년농에게 지원하고 있다.

김기진 지사장은 "농업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으로 필요 농지를 제공하는 농지은행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배정 예산을 적극 운영해 농가 침체를 해소하고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을 참조하거나 농지은행(1577-7770) 또는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준